



(전임 학장·대학원장·교평의장 및 부의장들이 11월 18일 이사님들께 발송한 성명서입니다. 전임 학장·대학원장·교평의장단의 요청으로 교수평의회에서 메일을 대신 발송합니다.)

전임 학장·대학원장·교수평의회의장단 성명서

1. 이사회는 연세공동체의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연세 역사 초유의 혼란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리는 3개월 전 재단이사회에 간곡한 호소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 상호신뢰의 약속에 기반 한 총장선출제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제도변경 재고를 이사회에 호소했던 이유는, 오랜 기간 학교에 몸담아 오면서 그 선출제도를 만든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약속의 산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현 이사회의 일부 이사들 역시 그 선출제도의 엄연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회의 상식적 판단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것이고, 그 기대를 저버린 이사회에 대해 깊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소통하지 않는 이사회는 연세정신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총장선출과 관련하여 현 이사회가 강제해온 불통의 비민주성은 일찍이 연세대학교가 경험하지 못한, 너무도 연세답지 않은 수치이며, 연세대학교를 불명예스런 대학으로 전락시키는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과거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갈등의 막다른 순간에도 교수들의 의견만큼은 최대한 존중해주었고, 교수들 또한 이사회의 선한 의지를 신뢰했습니다. 과거 연세대학교 이사회의 그 누구도 교수사회의 자유의결권을 문제 삼아 억압한 적은 없으며, 교수들의 대의기구인 교수평의회를 ‘때법 집단’이라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제18대 교수평의회의 충정어린 합의 노력과 12개 단과대학의 지지성명서마저 철저히 외면한 현 이사회에서 우리는 연세 창학정신과 전통의 붕괴를 목격할 따름입니다.

3. 이사회의 일방적 총장선임 방식에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소통과 화합 속에 통합적 리더십의 수장을 세워야 할 총장선출과정이 분열과 불신의 혼돈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창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듯이 제2의 창학, 제3의 창학 또한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섬기기보다 지배하려고 존재하는 이사회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권력집단일 뿐입니다. 연세 구성원들과의 신의를 철저히 저버린 채 강행하고 있는 이사회의 총장선임 방식은 납득할 만한 그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주장하고 결정한 그 어떤 절차도 올바른 연세정신을 기억하는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차기 총장에 대한 교수인준은 대학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은 사학법 상으로는 이사회가 선임하지만, 실제로는 연세공동체가 함께 뽑고 인정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교수인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기존의 최종 인준이 되었든, 교수평의회가 제시한 사전 인준의 대안이 되었든, 교수들의 의사는 형식 요건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교수의견 수렴절차에 관한 현 이사회의 최종안이 형식적 명분만 내세울 뿐 유명무실한 장치라는 교수평의회 의견에 동의합니다. 내실 있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하고 연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우선해야 합니다. 대학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심 없는 이사회라면 당연히 교수들의 생각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올바른 연세정신의 회복을 위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결의합니다.

지금 연세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총장선출을 둘러싼 이사회와 구성원의 합의는 파기되었고, 상호존중의 신뢰기반도 무너졌습니다. 차기총장선출이 완료되기까지 남은 한 두 달의 갈등은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학교의 발전을 지켜보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던 우리로서는 오늘의 파국을 초래한 연유와 과정이 참으로 애통하고, 그 과정에서 선임교수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큼니다. 연세공동체가 합심하여 극복해야 할 이 위기에 맞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남은 힘을 모으고자 결의합니다. 총장선출과정의 정상화와 재단혁신을 천명한 제18대 교수평의회 선언을 지지하며, 동료·후배 교수님들과 함께 우리의 선배 교수님들이 지켜왔고 사회구성원들로부터도 인정받았던 명문 연세의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18일

(가나다 순)

권호근(예방치과학, 전 치과대학장)

김원옥(마취통증의학, 전 교평의장)

김충배(외과학, 전 의료원 교평의장)

박상용(경영학, 전 경영대학장)

서용칠(환경공학, 전 보건과학대학장)

양승함(정치외교학, 전 사회과학대학장/연세춘추편집인)

유석호(불어불문학, 전 교육대학원장/연세춘추편집인)

이경호(미생물학, 전 교평부의장),

이상국(영어영문학, 전 인문예술대학장)

이정민(국제안보학, 전 UIC 대학장/국제학대학원장)

이태영(대기과학, 전 대학원장/기획실장)

장양수(내과학, 전 의료원 교평부의장)

최중길(화학, 전 이과대학장/교평의장)

김영인(생활디자인학, 전 생활과학대학장)

김지홍(경영학, 전 교평부의장)

노수홍(환경공학, 전 보건과학대학장)

박용원(산부인과학, 전 세브란스병원장)

안영수(약리학, 전 약학대학장)

양혁승(경영학, 전 교평의장)

이경태(경영학, 전 재단본부장)

이병인(신경과학, 전 의료원 교평의장)

이상조(기계공학, 전 부총장/공과대학장/교평의장)

이창하(화학공학, 전 교평부의장)

장동진(정치외교학, 전 사회과학대학장)

최양수(언론홍보영상학, 전 정보대학원장)

홍순원(병리과학, 전 의료원 교평부의장)

